

## 그리스도 — 모세로 예표되신 참신언자

성경: 신 18:15-19, 행 3:22-23

### I. 신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 신 18:15, 암 3:7, 사 6:1-8.

- A. 신언자의 기능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다 — 고전 14:31, 딤후 4:2.
- B. 성경에 따르면, 신언자의 주된 기능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내는 것이다 — 암 3:7, 출 4:10-16.
- C. 하나님,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 히 1:1.
  - 1.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지만, 신언자들의 말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의도가 알려진다 — 사 45:15, 19, 1:1-2상, 6:1-8.
  - 2. 신언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께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낸다 — 벰후 1:20-21.
    - a. 어떤 신언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벰후 1:21.
    - b. 사람의 사상과 해석이 담긴 사람의 뜻과 갈망과 바람은 신언이 나오게 된 근원이 아니다.
    - c.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배가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바람을 말하도록 하신다.
    - d. 성경에 있는 어떤 신언도 신언자나 저자의 해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오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벰후 1:20-21.
- D. 거짓 신언자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말을 주체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 신 18:20-22.

### II. 모세는 신언자였고, 신언자로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신 18:15.

- A.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사십 년 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들에게 말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했다 — 신 1:1, 9-11, 18, 4:1-2, 5:11, 6:1-9.
- B.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자애롭고 연로한 아버지와 같았다 — 신 30:1-14.
  - 1. 비록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 신 32:1-47.

## 신명기

### 메시지 7 (계속)

2.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말했고, 하나님을 말해 냈으며, 이스라엘 자손 안으로 하나님을 말해 넣었다 — 신 11:8-25.
- C.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적셔지고 채워졌을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구성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한 대변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 출 34:29-35, 민 12:6-8.
  1. 사십 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내며 예언하였다.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 신 10:12-22.
  2.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던져 버리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께서 민족들에게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 신 29:25-28, 30:1-3.
  3. 그러한 신언자인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 행 3:22-23.
  4.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 요 12:49-50.

### III. 구약의 신언자인 모세는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대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언자 한 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언했다 — 신 18:15.

- A. 여호와는 그분의 말씀을 그 신언자의 입에 넣어 주실 것이고, 그 신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 신 18:18하.
- B. 그 신언자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모든 것에 따른 것이었다 — 신 18:16-17.
  1.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 5:22-28, 출 20:18-19.
  2. 그들이 한 신언자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언자에 대한 그들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 C.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곧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한 신언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 신 18:15, 18상.
  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하여 이 신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 요 1:14, 3:34, 7:16-17, 히 1:2상.
  2.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신 18:18상)라는 말은 장차 오실 신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실 뿐 아니라 인간적이실 것임을 가리킨다 — 요 1:1, 14, 롬 8:3.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7 (계속)

- a.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질 수 없었다 — 눅 1:31, 35.
  - b.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형제로 나오실 수 없었지만, 육체 되신 분, 곧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고 한 유대인이셨던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오셨다.
  - c.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유대인이 되셨다. 따라서 그분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세워진 그 신언자이시다 — 신 18:15, 18.
3.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 곧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적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신언자이심을 나타낸다.

#### IV.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언자로서 사역하셨다 — 행 3:22-23, 7:37.

- A.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신언자가 되셨다 — 요 3:34.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 요 1:1, 계 19:13, 히 1:2상.
  1.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따른 것이었다 — 요 7:16, 8:28하.
  2. 그리스도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다 — 요 12:49-50.
  3. 하나님의 신언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해 내셨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 마 11:27.
- C.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심으로써 신언하시고 예언하셨다 — 요 16:12-13, 마 24:2-25:46.
- D. 오늘날 신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말씀해 넣으신다 — 롬 8:10, 고 후 13:5, 골 1:27.

#### V. 참신언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언자로서 모세는 자신의 느낌에서 나온 무언가를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았다.

## 신명기

### 메시지 7 (계속)

- A. 바울은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었다.
1. 바울은 그의 말함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다 — 고전 6:17, 7:25.
  2.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도 원칙은 동일하다.
- B. 고린도전서 7장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며,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하나이며, 모든 면에서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한 사람의 영을 전달해 준다.
- C.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육체 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의 본이 있다 — 고전 7:10, 12, 25, 40.
1. 육체 되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심으로 사람을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 요 15:4-5.
  2.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 되시고, 사도들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말한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말이 되고, 그들이 말해 낸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말씀이다 — 고전 2:12-13.
  3.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있는 원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두 인격이 한 인격으로 사는 육체 되심의 원칙이다.
  4. 고린도전서 7장 25절과 40절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성을 본다. 그것은 너무나도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으로 침투되어서, 자신의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인 한 사람의 영성이었다.
  5. 우리가 그 영으로 적셔진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주님께 속한 사상일 것이다. 이것이 신언자로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해 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다 — 고전 6:17.